



## 포르투갈의 국가부채 비율 상승과 그리스에 대한 시사점

채원영 연구원

- 그리스가 2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연금, 임금, 국방비와 공공투자, 지방재정 등을 삭감하는 긴축(안)을 추진하고 있지만 포르투갈의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을 볼 때 긴축 위주의 재정정책이 국가 부채의 지속적인 관리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.
  
- 포르투갈은 구제금융을 제공한 EU와 IMF의 요구조건을 모두 이행했지만 GDP 성장률이 2010년 -1.5%를 나타내는 등 경제가 후퇴함에 따라 국가부채비율이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 - 당초 포르투갈의 긴축(안)은 2014년 포르투갈이 2% 이상 경제성장을 이루고, 이에 따라 부채 비율도 하락할 것이라는 전제로 설계됐지만 현실은 이와 상반된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.
  - 포르투갈은 2011년 5월 780억 유로(약 115조 3,200억 원)의 구제 금융을 받은 후 EU와 IMF의 요구대로 재정지출과 임금, 연금 등을 삭감하고 세수를 늘려 재정적자 규모를 3분의 1 이상을 줄였음.
  - 하지만 이 여파로 포르투갈의 GDP 성장률이 2010년 -1.5%를 나타냈고, 올해 성장률은 -3%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.
  - 현지시간 2월 14일 뉴욕타임스(NYT)에 따르면 포르투갈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2011년 5월 107%였지만 2012년에는 118%로 증가할 전망이다, 이는 부채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기 보다 경제가 후퇴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되고 있음.
  - IMF도 최근 경제동향에서 “만약 포르투갈의 성장이 예상보다 못하다면 국가부채는 더 이상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 될 수 없다”라고 경고하였음.
  
-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긴축 위주의 재정정책이 시행될 경우, 그리스 또한 포르투갈의 전철을 밟게 될 지도 모른다고 우려되고 있음.

(NY Times 등, 2/16)